

전국 최고 나이.크기 곰솔...도민 수호신 역할

[20 제주 산천단 곰솔군] 500~600년 된 곰솔 8그루...평균 높이 29.7m, 둘레 4.35m

데스크승인 2014.07.17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곰솔은 소나무과의 상록 침엽 교목으로 잎이 다른 소나무들보다 역세다. 소나무의 겨울눈은 붉은 색인 데 반해 곰솔은 회백색인 점도 다르다.

곰솔은 보통 바닷가를 따라 자라기 때문에 해송(海松)으로 불리며, 껍질 색이 검다는 뜻으로 흑송(黑松)이란 이름도 갖고 있다. 해풍과 염분에 강해 바닷가 방풍림(防風林)이나 방조림(防潮林)으로도 많이 식재돼온 나무다.

국내 수많은 곰솔 중 최고 어른 격인 나무들이 제주에 있으니, 바로 산천단(제주시 아라동 375-1번지 외 5필지)에 있는 곰솔 8그루다. 이들 곰솔은 전국의 곰솔 중 수령이 가장 많고 크기도 제일

큰 노목들이므로 알려졌다.

'제주 산천단 곰솔군(濟州 山川壇 곰솔群)'은 생물학적인 가치와 함께 조상들의 자연에 대한 사교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1964년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됐다.

이들 곰솔 8그루의 평균 높이는 29.7m이고 평균 둘레는 4.35m다. 나무 가지들의 폭은 12~24m에 달하며 수령은 500~6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산천단 동남쪽에 홀로 떨어진 곰솔은 밑동 둘레가 무려 7.8m에 달하고 가슴 높이 둘레는 7m가량일 만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이 나무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자랐는데 각 줄기의 두께만도 4.5m와 3.9m에 이른다.

이들 곰솔은 수령이 많은 탓에 수세가 약해 가지 부러짐 등을 예방하고 줄기가 썩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지대로 떠받쳐 있고 외과수술 흔적도 곳곳에 남아있다.

지난해 곰솔들은 제주 전역을 휩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으로 고사의 위기를 맞았다. 곰솔군에서 불과 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도 소나무 고사목이 발견돼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었다.

다행히 제주시 등이 곰솔군을 집중 관리한 결과 고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향토사학자들에 따르면 선조들은 천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큰 나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는 믿음의 연장에서 산천단 곰솔을 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라고 보고 신성시했다.

지금도 산천단 곰솔군의 주변에는 팽나무와 멀구슬나무, 쥐똥나무, 산뽕나무, 예덕나무 등이 마치 곰솔들을 호위하듯 빙 두르고 있어 더욱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한 향토사학자는 "선조들은 하늘과 인간의 교섭처로 높은 산을 숭배했는데 하늘의 우두머리가 산신이 돼 나라와 마을 수호신이 된다고 믿었다"며 "산천단은 산악숭배에 의해 조성된 신성한 장소

로, 곰솔군은 신수(神樹)로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현중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